

No.29

Japan Weekly Digest

2010. 4. 5 ~ 4. 11

□ 금주의 이슈

- 닛산·르노·다임러 전략적 제휴 발표
- 세계M&A통계 발표, 중국이 일본을 추월
- 美교통부, 도요타에 최대 과징금 부과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‘일어서라 일본’신당 창당
- 베트남 원전 2기 수주를 위한 총력전
- 노조연합 회장, 총리에게 공약재검토 요청
- 이견희 회장, 경단련 차기회장과 만찬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의료·문화산업 지원전략 발표
- 스마트 그리드 등 지원체제 강화
- 日부품·소재기업, 자동차용 설비투자 본격화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최강 한국~일본은 왜 계속 패배하는가?
〈주간 이코노미스트(4월13일)〉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,
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(Tel.02-3014-9888)

○ 닛산·르노·다임러 전략적 제휴 발표

- 닛산·르노·다임러는 7일, 주식상호 보유 등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발표
 - * 4월6일 현재, 시가총액은 르노(105억유로), 닛산(297억유로), 다임러(377억유로)로 세계판매 대수 3위를 차지
- 주식을 상호 3.1%씩 보유하고, ①전기자동차 공동개발, ②엔진 공동화, 차세대 엔진 개발, ③소형차 상호공급 등에 합의
- 이번 제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세계표준을 선도, 신흥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됨

<전략적 제휴 주요 내용>

□ 전기자동차 공동개발	- 다임러 「스마트」, 르노 「트윙고」 공동개발, 13년 판매 - 전기자동차 공동생산 등
□ 엔진 공동화 □ 차세대 엔진 개발	- 르노·닛산은 다임러에 3기통, 4기통 엔진 공급 - 다임러는 인피니티에 4기통, 6기통 엔진공급
□ 소형차 상호 공급	- 다임러는 르노가 생산하는 소형차를 공급받아 12년 이후 판매 * 르노 프랑스공장에서 제조한 차량

○ 세계 M&A통계 발표, 중국이 일본을 추월

- 딜로직의 M&A통계에 의하면 작년(2009. 4월~2010.3월) 중국의 글로벌 M&A는 37% 급증한 2,092억 달러로 집계되었다고 발표
- 같은 기간 일본 기업의 글로벌 M&A 규모는 전년 대비 7% 감소한 1,548억 달러
 - * 중국의 M&A 규모가 일본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
- 중국은 2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서 글로벌 M&A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

○ 美교통부, 도요타에 최대 과징금 부과

- 美교통부(NHTSA)는 5일, 가속페달 리콜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도요타에 1,638만 불(15억 엔)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
- 美 교통장관은 “도요타는 작년 9월말 차량 가속페달 결함 사실을 발견하고도 NHTSA에 통보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”고 비판

○ 日보수인사 ‘일어서라 일본’ 신당 창당

- 히라누마 前경제산업성장관, 요사노 前재무장관은 5일, 신당 결성을 위한 회합에서 10일, ‘일어서라 일본’ 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
- 신당의 주요정책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와 美·日 동맹을 강화
- 요사노 前재무장관, 나카가와 중의원 의원 등 각료출신 5인이 주축. 총리의 친동생인 구니오 의원은 정치자금 문제로 제외. 7월, 참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

○ 베트남 원전 2기 수주를 위해 총력전

- 하토야마 총리를 주축으로 일본정부 수뇌들은 베트남이 발주하는 제2기 원전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
-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베트남 총리로부터 「일본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다. 최대한 검토하고 싶다」는 내용의 서신을 받았다고 언급
- 센고쿠 국가전략담당장관도 5월에 베트남을 방문하여, 일본 업체의 원전수주를 지원할 예정
- 일본원자력산업협회도 6일, 베트남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발표, 베트남 정부가 원하는 기술, 서비스에 관한 정보 수집을 실시할 예정

○ 노조연합 회장, 총리에게 공약 재검토 요청

- 고가 노조연합회장은 하토야마 총리와 면담에서 민주당의 선거공약도 중요하지만, 경제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공약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
-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국민의 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,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공약 실천의지를 표명

○ 이견희 회장, 경단련 요네쿠라 차기회장과 만찬

- 삼성그룹 이견희 회장은 승지원에서 일본 경단련 요네쿠라 차기회장 등 일본 기업인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고 8일 발표
- 이 회장은 “삼성이 최근 몇 년간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더 있다. 한국과 일본기업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본다”고 언급

○ 의료·문화산업 지원전략 발표

- 경산성 산업심의회는 5일, 의료·건강(개호)산업과 애니메이션, 패션 등 문화산업을 일본경제의 성장산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전략을 발표
-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, 외국인 환자의 체류자격 완화, 의료통역 육성 등 환경을 정비
- * 일본은 뛰어난 의료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외국인은 관광비자로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고 의료비가 매우 비쌌
- 일본을 콘텐츠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유치, 콘텐츠 비즈니스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

○ 경산성, 스마트 그리드 등 환경기술·인프라 지원체제 강화

- 경산성은 도시바, 도교전력 등 287개 기업 및 단체 등과 해외 인프라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 「스마트 커뮤니티·얼라이언스」 개최
-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태양광,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배려형 인프라 수주가 목적
- 4월중 미국을 방문, 미국 「그리드 와이즈·얼라이언스」와 MOU체결 예정
- * MOU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스마트 그리드 수주를 위한 공동 노력, 연구개발, 기술표준화, 비용 삭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

○ 日부품·소재회사, 자동차용 설비투자 본격화
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일본부품·소재기업의 자동차용 설비투자가 회복 추세에 있다고 보도
- 국내 자동차생산은 리만 쇼크 후, 크게 감소했으나 신흥시장에서 자동차판매증가, 선진국에서 환경자동차 수요확대 등의 영향으로 설비투자가 회복

〈자동차용 설비투자 내용〉

□ 미쓰비시화학	고기능 수지설비 가동
□ 도레이	고기능 수지 생산능력 확대
□ 신일본제철	인도에서 타타제철과 자동차용 강판 합작투자
□ NTN	신규설비에 150억 엔 투자

최강 한국~일본은 왜 계속 패배하는가?

〈주간 이코노미스트(4월13일)〉

○ 한국기업의 원동력 :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전개

- GDP가 일본에 비해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불가피
- 국내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신흥국에서 새로운 사업전개를 추구했음
- 투자처(FDI)가 중국, 미국에서 오세아니아,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분산

○ 세계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향상시킨 요인

1. 오너회장 체제로 빠른 의사결정

- 리스크가 큰 신흥국에서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수요창출에 성공

2.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볼륨 존을 타깃

- 현대자동차는 중국과 인도에서 소형차 생산체제 구축
- * 일본은 고부가가치 제품(고급차량)을 중심으로 현지에 수출

3.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제품 도입

- 저가격에 현지 시장특성에 맞는 기능을 추가하여 성공
- * LG전자는 중동에서 코란 내장형 박형 텔레비전을 판매

4. 연구개발과 인재육성을 글로벌전개

- 연구개발 거점의 글로벌 편성과 계획적인 글로벌인재 육성
- * 삼성은 「지역전문가제도」를 도입, 세계 각국에 1년간 파견, 현지교육을 통해 지역전문가로 육성

5. 한국정부가 FTA를 통해, 기업의 글로벌전개를 지원

- 수출의존도(현재45.5%)가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먼저 FTA를 구축함으로써, 통상 측면에서 우위성 확보

【일본 관련 주요 보고서】

□ 『신흥국시장의 성장과 일본기업의 전략』 노무라 종합연구소, 4월5일

- 신흥국에서의 성공비결은 1)선행자 이익, 2)실패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, 3)인재임. 한국기업의 경쟁력은, 적극적인 투자와 인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. 일본도 대담한 투자와 인재에 대한 투자 강화로 신흥국 비즈니스를 전개해야 함

<http://www.nri.co.jp/opinion/chitekishisan/2010/pdf/cs20100202.pdf> (출처)

□ 『신흥국 중심으로 회복하는 세계경제』 미쯔호 종합연구소, 4월7일

- 세계경제는 신흥국이 견인해 오고 있으며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임. 일본경제도 對신흥국수출에 힘입어, '11년에는 국내민간수요도 약간 확대되지만, GDP갭의 공급 초과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디플레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

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search/r100401forecast.pdf> (출처)

□ 『로우호(老舗) 경영의 시사점』 신금중앙금고, 4월7일

-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, 로우호(老舗)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음. 로우호의 기업경영은 보수적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, 혁신의 연속이며, 성공한 로우호기업은, 사업성장보다도 1)사업의 장기존속, 2)철저한 고객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

<http://www.scbri.jp/PDFsangyoukigyousc/sb79h22F01.pdf> (출처)

【금주의 일정】

일자	주 요 일 정
4월 5일 (월)	○ 제2회 정부·노조연합 회담(총리관저) ○ 美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발사 * 일본인 우주비행사 야마자키 나오코 탑승
4월 6일 (화)	○ 금융정책결정회의(일본은행) ⇨ 기준금리 0.1%동결 ○ 2월 경기동향지수 발표(내각부)
4월 7일 (수)	○ 시라카와 일본은행 총재 기자회견 ○ OECD 경제전망 발표

일자	주 요 일 정
4월 8일 (목)	○ 4월 금융경제월보 발표(일본은행) ○ 3월 경기Watcher 조사 발표(내각부) ○ 2월 국제수지 발표(내각부)
4월 9일 (금)	○ 기후변화협약 사무회의 개최(독일 본)

【파트너를 찾습니다】

선박(어선)용 엔진절감장치 판매대리점 모집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 S기업(상사)에서 어선용 연료절감장치(메이커:니혼테크노)를 한국내에서 선주(船主)를 대상으로 판매해줄 대리점을 찾고 있습니다.

초소형 프레이즈반(밀링머신) 판매 / 부품조달

- 의뢰기업명 : 에노모토 공업
- 일본의 에노모토 공업으로부터 초소형 프레이즈반 한국 판매 및 해당 부품의 (한국으로부터의) 조달에 대한 의뢰가 있었습니다.

스텐레스단조 부품(반도체제조장치용 밸브) 조달

- 의뢰기업명 : U공업 (기업명 추후 공개)
- 일본에서 한국의 스텐레스단조메이커를 찾고 있습니다.
- 용도 : 반도체제조장치에 사용되는 밸브부품
- 향후일정 : 추후 도면제공, 공장견학 예정

특허리포트 판매 희망

- 의뢰기업명 : 네오테크놀러지
- 일본기업 네오테크놀러지(www.neotechnology.co.jp)에서 한국 출판사 또는 기업(전자분야)을 대상으로 특허 리포트 판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.

다중접합기술, DB기술 제공 희망

- 의뢰기업명 : S기업(상세 기업명 개별공개 예정)
- 일본의 S기업으로부터 '다중복합기술'과 'DB기술'을 제공(판매)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.